

제 313호 · 2015년 7월 1일

미래전략연구본부 국제물류연구실 국제물류투자분석센터

총괄 이성우 실장, 감수 길광수 감리위원

KMI

국제물류위클리

K O R E A M A R I T I M E I N S T I T U T E

| CONTENTS |

물류정책·사업동향

1. 터미널 간 얼라이언스, 초대형선박으로 인한 물류 혼잡 해결 대안
2. 나이지리아, 심해항만 이봄(Ibom) 자유무역지역 개발 승인
3. 선박 대형화로 이용 가능 피난항 감소
4. 크리슈나파트항-방갈로 간 신규 컨테이너 철송 서비스 개통

물류시장동향

1. 이라크 항만 프로젝트에 입찰자들의 관심 집중
2. 러시아 야말-네네희주 사레하르드시의 복합 내륙수로 항만 개장

공지사항

1. 중소중견 물류기업 해외진출 컨설팅 및 시장조사 지원 대상사업 모집
2. 2015년 항만구역 내 우수물류창고 인증 공모
3. 제9회 해외물류사업 설명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OREA MARITIME INSTITUTE

물류정책 · 사업동향

□ 터미널 간 얼라이언스, 초대형선박으로 인한 물류 혼잡 해결 대안

- 터미널 간 통합 운영(terminal alliances)이 거대 선사간 얼라이언스, 더 큰 초대형 선박 투입, 초대형선의 전배(cascading) 등 삼중 타격(triple whammy)에 대한 방어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견해가 나왔음
- Drewry Shipping사의 컨설턴트인 Neil Davidson씨는 초대형 컨테이너 선박 기항 후 양적하하는 어마어마한 양의 컨테이너 박스 때문에 터미널 야드의 혼잡은 심화되고 있다고 언급함
- 필요한 안벽길이와 야드 사이즈의 관계는 변화하고 있지만, 땅값이 비싸거나 항상 사용 가능한 것이 아닌 관계로 더 이상 야드를 확장할 수 없어 터미널은 점점 낙후 되고 있음
 - 10여년 전에 건설된 터미널의 안벽길이 및 야드 사이즈로는 초대형선 기항에 대응하기 어려워 터미널 운영자는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주요 컨테이너 선사들이 만장일치로 다른 컨테이너선사와의 얼라이언스를 결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터미널 운영사들의 통합운영은 선박의 재항시간(turnaround time) 단축과 비용 절감을 달성하기 위한 다음 단계의 해법으로 기대되고 있음
 - 터미널 연합을 통한 통합운영이 항만의 혼잡을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이 될 수 있음
- 한 예로 최근 결성된 타코마항과 시애틀항의 통합운영으로 두 항만의 컨테이너 처리량이 증가했음
- 항만이 초대형 컨테이너 선박의 화물을 24시간 내에 3,000 ~ 3,500 박스를 처리하는 것이 현실적인 목표치라고 Drewry가 언급함
- 그러나 머스크 선사는 항만에 대해 24시간 내에 6,000박스를 처리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터미널이 시간당 선석당 생산성을 향상시킨다고 할지라도 결코 달성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Drewry가 밝힘
- 현실적으로 이같은 요구는 터미널 운영자에게 너무나 비싼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이며, 터미널 통합운영(terminal alliances)이 추가적인 장비에 드는 비용을 절감하는 한편 생산성을 유지할 수 있는 선택 대안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함

자료 : www.porttechnology.org, 2015.6.26.

이언경 전문연구원 (☎ 051-797-4682, eklee@kmi.re.kr)

□ 나이지리아, 심해항만 이봄(Ibom) 자유무역지역 개발 승인

- 2014년 남아공을 제치고 아프리카 최대의 경제대국으로 떠오른 나이지리아가 새로운 도약을 위해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심해항만 이봄 항만 및 자유무역지역(FTZ) 개발을 본격화하고 있음
 - 나이지리아 연방집행위원회(Federal Executive Council, FEC)¹⁾는 최근 자국 아크와 이봄 주(Akwa Ibom)에 위치한 이봄의 항만 및 FTZ에 대한 민간참여 방식(PPP) 방식의 개발계획을 승인했음
 - 이봄 항만은 남대서양을 면하고 있는 나이지리아 아크와 이봄 주에 있으며 카메룬에 인접한 항만으로 향후 나이지리아의 중앙 및 동부 시장으로서의 관문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임
- 나이지리아는 석유 수출을 기반으로 최근까지 높은 경제 성장세를 이어오는 동안, 급증하는 물동량으로 인한 항만 혼잡에 시달려왔으며, 이에 대응하여 지난 2012년 나이지리아 항만 부문의 물리적 발전과 운영 개선을 위한 국가항만 장기 마스터플랜을 수립한 바 있음²⁾
 - 동 계획은 수립 당시인 2012년을 기준으로 향후 25년간 나이지리아 전역 6개 항만 단지에 대한 종합적인 발전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함
 - * 나이지리아 6개 항만 단지(Port Complexes)는 나이지리아 수도이자 최대 항만 도시 라고스를 중심으로 한 라고스 콤플렉스(LPC), 나이지리아 중앙 연안부에 위치한 하코트 항(Port Harcourt)을 중심으로 한 리버스 콤플렉스(Rivers Complex), 로로 항 및 틴 칸 섬(Tin Can Island) 항만을 중심으로 한 Tin Can Island 항만 콤플렉스(TCIPC), 델타 항만 콤플렉스, 칼라바 항만 콤플렉스, 오니 항만 콤플렉스 등으로 구성됨³⁾
 - 종합계획에는 항만 개발과 항만 민영화 등 운영 개선을 위한 로드맵뿐만 아니라 이에 기초한 실행계획까지 포함
- 나이지리아는 세계 8대 산유국 가운데 하나이며, 인구는 약 1억8천만 명에 이르는 아프리카 최대의 인구 대국(세계 7위)으로서 향후 발전 전망에 따라 전체적으로 아프리카 최대의 물동량 증가가 예상되고 있음
 - 나이지리아 GDP는 2014년 5천2백10억 달러를 기록, 아프리카의 전통적인 경제대국인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GDP(약 3천5백억 달러)를 크게 앞지르며 아프리카 최대 경제대국으로 부상함
 - 나이지리아 인구는 2050년에는 4억4천만 명을 돌파하여 인도, 중국에 이어 세계 3위 인구 대국이 될 것으로 전망됨

1) 연방체제 국가인 나이지리아의 최고 의사 결정기구. 행정부 수반으로서 대통령이 의장을 맡고, 각 부처 장관들로 구성되어 있으나 국회의원이거나 대학교수들도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음. 연방 정부의 정책과 프로그램을 관장하고 입법부를 통과한 법률 이행을 보장하는 역할을 함.

2) 이하의 내용은 CPCSC의 "Nigerian National Ports Master Plan"(www.cpcstrans.com) 참조.

3) 상세한 내용은 NPA 공식 사이트(www.nigerianports.org) 참조.

<아크 이봄 주의 위치>



자료 : thewilnigeria.com

<이봄 항만 및 FTZ 개발 조감도>



자료 : www.portfinanceinternational.com

- 이봄 항만 및 이봄 FTZ 개발 계획이 승인되기 이전인 2015년 2월, 나이지리아항만당국(NPA)은 이봄 항만 및 FTZ 개발에 대한 사전 정지작업으로 프로젝트개발조정위원회(PDSC)를 구성하였으며, 국내 및 해외 투자자 유치활동을 벌여왔음
 - PDSC 발족 당시 NPA측은 이봄 항만 개발에 대해 이미 20개 이상의 국내 및 해외 투자회사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발표함
 - 한편 NPA측은 항만 및 FTZ 개발에 필요한 재원은 PPP 방식으로 조달하겠다고 발표함
 - * 이는 나이지리아 리버스 주에 위치한 오니 항(Port Onne)의 개발경험에 따른 것으로, 오니항은 나이지리아 석유가스의 수출 전진기지임. 나이지리아는 수출능력 확대를 위해 오니항 항만 확대 및 석유가스 가공단지 조성을 위해 2014년 상반기까지 80억 달러를 투자한 바 있으며, 160개 기업이 입주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이지리아 당국은 발표한 바 있음
 - 나이지리아는 1990년대부터 현재까지 32개의 FTZ를 지정하였으며, 이봄 항만에 대한 '산업자유 구역' 지정은 2012년 2월에 이뤄졌음
 - 향후 나이지리아는 이봄 항만 배후에 제조업 및 석유가스 거래서비스 시설 설치 등 이봄 FTZ를 개발할 예정임
 - * 정유 시설, 석유화학 공장, 선거시설, 보관 시설 및 석유가스업 지원시설 등으로 구성

자료 : www.infrappworld.com, 2015.6.22.

박성준 전문연구원 (☎ 051-797-4774, sjpark@kmi.re.kr)

□ 선박 대형화로 이용 가능 피난항 감소

- 선박이 대형화 되면서 비상시 구난이 가능한 피난항을 찾는 것이 점차 어려워졌음
 - 영국 해사경비청 선박구난관리부문 대표인 Hugh Shaw씨는 선박이 점차 대형화 되고 있는데, 대형화의 의미는 보다 적은 수의 항만만이 대형 선박들을 수용하고 구난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말했음
- 선박구난관리상 피난항의 배정은 환경적 영향과 정치적 이슈로 인해 매우 민감한 주제로, 이와 관련해 IMO에서는 2003년에 결의안을 채택했지만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님
 - IMO 결의안은 A.949과 A.950으로 성문화 되었는데, 첫 번째 결의안은 선박이 외부의 도움은 필요로 하지만, 탑승자의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경우와 관련되어 있는데, 생명과 관련 있는 경우 해상수색 및 구조협약의 규정을 따르도록 되어 있음
 - 선박이 사고를 당한 경우, IMO 가이드라인에서는 상황 악화로 인한 선박 파손과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화물과 연료를 이송하고 피해를 복구하도록 되어있음
 - 이러한 작업은 주로 피난항에서 이루어지는데, 사고 선박을 안전한 항만으로 이동시키는 것은 경제적 또는 환경적 이슈로 인해 해당 지역의 반대에 봉착할 수 있음
 - 두 번째의, IMO 결의안 A.950에서는 연안관련 정부기관과 선박간에 필요한 정보를 상호 교환할 수 있는 해양지원 서비스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 이러한 서비스를 통해 국가차원에서 해양구난과 관련된 운영상의 모든 단계를 모니터링 할 수 있음
 - Shaw씨에 따르면 피난장소의 결정은 때때로 '운영'의 관점이 아닌 '관습'상의 선택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일부 구난업체의 경우 개별적으로 관계기관과 업무를 선호하기 때문에 타구역에서는 업무요청이 없는 경우도 있음
 - 또한 여러 장소에서 관계기관에 피난요청이 동시에 들어오는 등의 이유로 종종 혼돈, 지연, 통신상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함
- 해양 사고에 대처하고 피난항을 할당하는 등의 훈련을 통해 연안 국가들 사이의 협력강화가 필요함
 - 과거 *MSC Flaminia*호는 파손된 선박을 어느 국가로 이동할지 결정하는 문제로 구난이 상당 기간 늦어졌으며, *Maritime Maisie*호는 위험화물로 인해 구난주체의 결정이 늦어졌음
 - Svitzer Salvage의 아시아-태평양 운영 관리자인 Arnab Chakravorty씨는 구난업체가 미리 계획을 세우고, 항만에서 필요 자원 및 인력을 적극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지역 간 협력을 통해 피난항 지정시 정치성을 배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자료 : www.joc.com, 2015.6.26.

이홍원 연구원 (☎ 051-797-4783, hongwon@kmi.re.kr)

□ 크리스나파트항-방갈로 간 신규 컨테이너 철송 서비스 개통

- 크리스나파트항(Krishnapatnam Port)과 방갈로의 화이트필드 내륙컨테이너기지(whitefield Depot ICD)를 연결하는 신규 컨테이너 철도수송 서비스가 개통됨
- 크리스나파트항은 '15년 6월 19일 첫 개시한 본 신규 서비스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방갈로에 있는 다양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수입품들의 운송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함

<크리스나파트항 신규 컨테이너 철도 수송 서비스>



자료 : www.container-mag.com

- 크리스나파트항의 대변인은 인도의 CONCOR(Container Corporation of India Ltd.)와 연계하여 제공되는 본 신규 서비스가 화이트필드 내륙컨테이너기지의 출도착 화물수송 중에서 가장 빠른 운송방식이 될 것이라고 밝힘
- 또한, 본 신규 서비스는 기존의 운송 루트에 비해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매력적이라고 밝힘
 - 철도수송 서비스는 편도 90teu 수송이 가능하며 기존의 도로 이용 시 24~36시간이 소요되던 크리스나파트항과 방갈로 간의 수송시간을 18시간으로 단축시킨다고 밝힘
 - 이에 더하여, 신규 철도 화물수송 방식으로 인해 고객들이 컨테이너당 최대 150달러(USD, 약 168,000 원)⁴⁾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전망함
- 크리스나파트항의 대변인은 크리스나파트항이 아직까지 인도의 주요항만은 아니지만, 인도의 남부에 있는 항만 중 가장 현대적이며 수준 높은 기반시설을 구축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항만이라는 측면에서 본 항만의 발전가능성이 높다고 밝힘

자료 : www.container-mag.com, 2015.6.26.

고재성 연구원 (☎ 051-797-4776, jsko@kmi.re.kr)

4) 1 USD = 1,119.50 KRW 외환은행 2015.6.26. 매매기준율 적용

물류시장동향

□ 이라크 항만 프로젝트에 입찰자들의 관심 집중

- 이라크 정부는 이라크 남부지역에 위치한 포 반도(Faw Peninsula)의 주요 항만 건설에 중국, 그리스 및 스페인 기업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고 보도함
- 이번 프로젝트는 5,400만m² 부지를 이용하여 새로운 항만시설을 건설하는 것으로, 주요 시설내역은 다음과 같음
 - 연간 2,500만개의 컨테이너 처리가 가능한 16km 길이의 컨테이너 터미널 건설
 - 연간 5,500만톤 처리가 가능한 5km 길이의 벌크 터미널 건설
 - 연간 400만톤 처리가 가능한 4km 길이의 일반 화물 터미널 건설
 - 일간 3,700만ℓ 처리가 가능한 6km 길이의 석유 파생상품 터미널 건설 등
- 프로젝트의 총 투자 금액은 약 80억 달러로 추정됨

자료 : www.infrapppworld.com, 2015.6.23.

신수용 전문연구원 (☎ 051-797-4780, shinsy@kmi.re.kr)

□ 러시아 야말-네네츠주 사례하르드시의 복합 내륙수로 항만 개장

- 지난 6월 26일 사례하르드시의 새로운 복합 내륙수로 항만(river station)이 개장되었음
 - 신규항만 개장은 북극지역과 관련하여 야말의 중요성이 대두된데 따른 것임
 - 이와 연계되어 야말지역 발전을 위한 새로운 주거, 도로, 하항 등의 시설들이 건설되고 있음
 - 특히 야말-네네츠주에 위치한 사베타항을 통해 러시아의 북극 개발이 가능하게 될 전망임
 - 새롭게 건설된 복합 내륙수로 항만은 야말-네네츠주 및 러시아 북극지역의 개발을 위한 프로젝트 중의 하나임
- 이 내륙수로 항만은 2011년에 착공했으며, 노보시비르스크 연구소가 건설 프로젝트를 주관했음
 - 이 항은 동시에 3척의 여객선의 접안이 가능하며, 수륙양용선박을 위한 부두시설도 갖추
 - 여객승객을 위한 안전시설도 설치되어 있음
 - 부두의 총 길이는 248.5m에 달함

자료 : www.portnews.ru, 2015.6.26.

이하림 연구원 (☎ 051-797-4758, harimy@kmi.re.kr)

< 중소·중견 물류기업 해외진출 컨설팅 및 시장조사 지원 대상사업 모집 >

□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국제물류투자분석센터에서는 **중소·중견 물류기업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해외진출 상시 컨설팅**과 **해외 현지시장 공동조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대상기업

- 「물류정책기본법」에 의한 물류사업을 영위하는 중소·중견기업
 - 주된 사무소가 해외에 소재하는 경우 대한민국 국민의 지분이 50% 이상인 기업 포함
 - ※ 중소·중견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적용 대상기업

□ 대상사업

- 해외 물류시설(물류단지·센터·창고·항만·복합물류 터미널 등)의 개발·투자·운영 사업
- 해외 화물운송 및 물류서비스 시장 진출을 위한 법인·지사·사무소 설립 사업
- 상기 관련 M&A 및 기타 해외 물류사업으로 인정되는 사업

□ 지원내용

1. 해외진출 상시 컨설팅

- 진출희망 지역 또는 추진하려는 해외 물류사업과 관련한 현지 시장정보 및 진출·투자 여건 등 기초정보에 대해 단기 컨설팅 지원
 - 현지 경제·무역·인프라·물동량 현황, 투자 관련 법·제도 등에 관해 기업이 문의 시, KMI가 보유하거나 입수 가능한 정보의 범위 내에서 해당 문의사항 관련 정보 제공
- 컨설팅 결과물은 문서 형태로 제공

2. 해외 현지시장 공동조사

- 해외 물류사업과 관련한 기업의 의사결정을 위해 현장실사가 필요한 경우, 현지 공동조사(KMI 연구진과 물류기업 임직원이 동반)를 수반한 중기 컨설팅 지원
 - 필요시 해외투자 유관기관 및 현지 유관기업 관계자와의 상담 주선
 - ※ 현지 공동조사에 수반되는 출장비 등은 KMI와 해당기업이 각자 부담
- 조사 종료 후 공동조사 보고서 제공

□ 지원사업별 신청방법

1. 해외진출 상시 컨설팅

- 신청기간 : 연중 상시 신청
- 신청방법 : '해외진출 상시 컨설팅 지원 신청서'(별첨 1)를 작성하여 이메일로 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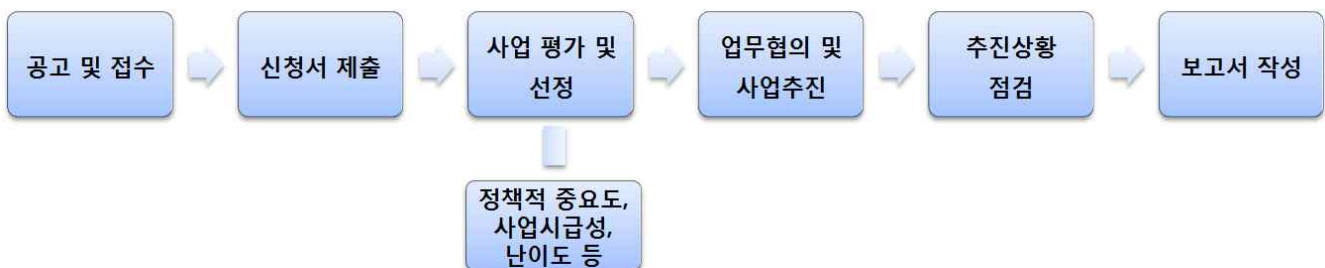
2. 해외 현지시장 공동조사

- 신청기간 : 연중 상시 신청
- 신청방법 : '해외 현지시장 공동조사 지원 신청서'(별첨 2)를 작성하여 이메일로 신청
- ※ 담당자 : 김은우 전문연구원(hisgrace@kmi.re.kr), 손보라 연구원(bora62@kmi.re.kr)

□ 신청서 평가 및 기타

- 선정기준
 - 해당 사업의 실현 가능성 · 시급성 · 난이도, 정책적 중요도,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 · 확보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 취지에 적합한 사업을 선정 · 지원
- 선정결과 발표 : 신청서 접수 후 2~3주 이내 개별 통지
- 유의사항 : 제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등은 사업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기타 사항은 국제물류투자분석센터(김은우 051-797-4772 / 손보라 051-797-4781)로 문의
- ※ 평가결과의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음

□ 사업 추진절차



< 2015년 항만구역 내 우수물류창고 인증 공모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및 「물류창고업 등록 및 우수업체 인증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2015년 항만구역 내 우수물류창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인증계획을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17일

항만구역 내 우수물류창고 인증센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1. 신청기간

2015년 4월 17일(금) 09:00 ~ 2015년 7월 31일(금) 18:00

2. 신청자격

「항만법」 제2조제4호 및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항만구역에 물류창고업을 등록한 자

* 물류창고업 등록 사업장별로 인증 신청

3. 신청방법, 제출서류 등 기타 사항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홈페이지 내 인증계획 공고문 및 별첨자료 참조

4. 문의처

항만구역 내 우수물류창고 인증센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김은미 연구원(051-797-4778, usea1004@kmi.re.kr)

김주혜 연구원(051-797-4779, joohye915@kmi.re.kr)

< 제9회 해외물류사업 설명회 >

- 일시 : 2015. 7. 3(금), 14:00 ~ 17:30
- 장소 :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
- 주최 : 해양수산부
- 주관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제물류투자분석센터
- 프로그램

진행 : KMI 김은우 전문연구원

시간	주요내용	
13:30~14:00	등록 및 자료 배포	
	개회식	
14:00~14:05	개회사	■ 김성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
14:05~14:10	환영사	■ 전기정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
	1세션	
14:10~14:40	극동러시아 보스토치니 다용도 터미널 개발 프로젝트	■ 임재인 KSH 수석 부사장
14:40~15:00	질의 · 응답	
15:00~15:30	극동러시아 선도개발구 복합물류센터 개발사업	■ 이성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제물류연구실장
15:30~15:45	질의 · 응답	
15:45~16:00	네트워킹	
	2세션	
16:00~16:30	캄보디아 항만공사 기업공개(IPO) 사업	■ 한경태 유안타증권 캄보디아법인장
16:30~16:50	질의 · 응답	
16:50~17:10	2015년 국제물류투자분석센터 지원사업 소개	■ 김은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전문연구원
17:10~17:20	질의 · 응답	
17:20~17:30	종합정리 및 폐회	■ 이성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제물류연구실장

○ 참가신청 : 2015년 6월 3일(수)~7월 2일(목) 18:00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http://www.nelt.or.kr/seminar/view?seq=24>
- 또는 별첨 신청서를 이메일(bora62@kmi.re.kr, jsco@kmi.re.kr)로 송부

○ 참가문의 : 손보라 연구원(☎ 051-797-4781, bora62@kmi.re.kr)

고재성 연구원(☎ 051-797-4776, jsco@kmi.re.kr)

※ 본 사업 설명회는 좌석이 한정된 관계로 선착순 참가접수를 받을 예정이므로, 관심 기업은 반드시 사전 참가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찾아오시는 길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39 상공회의소 회관192 (☎ 02-6050-3114)

- 지하철 2호선 : 시청역 9번 출구 5분거리
- 지하철 1호선 : 서울역 3번 출구 5분거리
- 지하철 4호선 : 회현역 5번 출구 5분거리



『제9회 해외물류사업 설명회』 참가신청서

■ 참가자 정보

회 사 명	
-------	--

참가자명(1)		직 위	
부 서		이메일	
전화(사무실)		전화(휴대폰)	

참가자명(2)		직위	
부 서		이메일	
전화(사무실)		전화(휴대폰)	

※ 참가자가 더 있을 경우 칸을 만드셔서 참가자 정보를 기재 바랍니다.

※ 기타 : 참가비 무료, 선착순 접수

※ 참가를 희망하실 경우 동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이메일로 송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 2015.7.2(목) 18:00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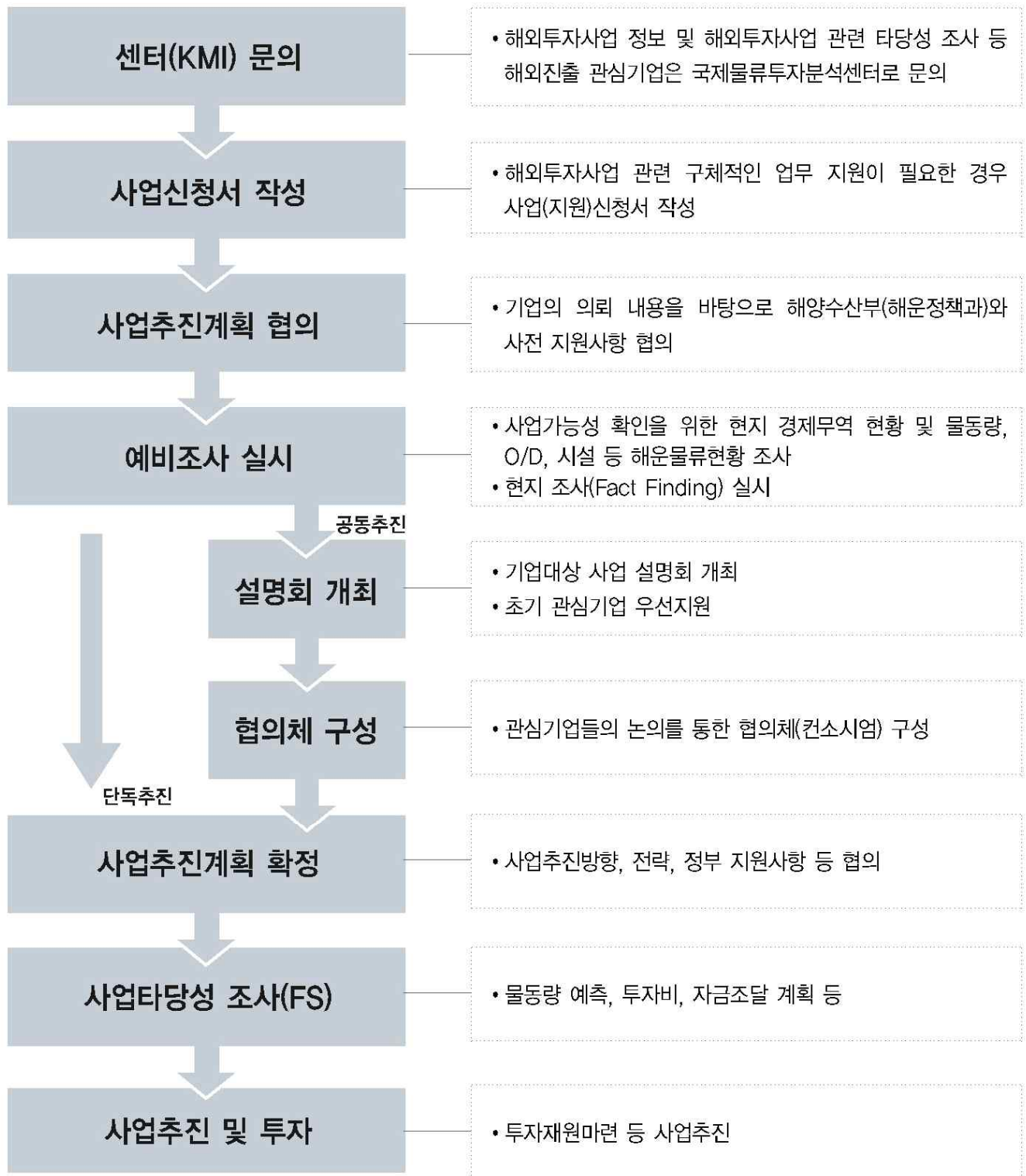
- 신청서 송부방법 : E-mail (bora62@kmi.re.kr, jsko@kmi.re.kr)

※ 문의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제물류투자분석센터

(손보라 연구원 : 051-797-4781 / 고재성 연구원 : 051-797-4776)

한 국 해 양 수 산 개 발 원

[해외투자사업 추진절차 및 센터 이용문의]



* 기초타당성 조사(실비 부담), 정부간 협상, 투자사업 관련 정보 및 기초 자료 제공